2020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 신진학자 학술 연구 성과 발표

|일시| 2020. 12. 19(토) 13:30-18:00

|장소| 비대면(ZOOM)

|주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후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韓國道德倫理科教育學會

# 2020년도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비대면주소: ID 697 236 0207

https://snu-ac-kr.zoom.us/j/6972360207

| 시간 | 발표 및 내용 | 사회 |
|---|---|---|
| 13:30-14:00 | 등 록 | |
| 14:00-14:30 | ◈ 개회사: 윤건영(본회 회장, 청주교대)<br>◈ 환영사: 정창우(서울대 교수, 인성교육연구센터장) | 김형렬<br>(서울대) |
| 14:30-15:20 | 발표주제: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br>발 표 자: 석자춘(서창중)<br>토 론 자: 권재은(인천 숭의초) | 정창우<br>(서울대) |
| 15:20-15:30 | 휴 식 | |
| 15:30-16:20 | 발표주제: 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연구<br>발 표 자: 신종섭(군포고)<br>토 론 자: 신호재(공주대) | 김형렬<br>(서울대) |
| 16:20-16:30 | 휴 식 | |
| 16:30-17:20 | 발표주제: 미국 고등학생의 마틴 루터킹의 날 기념 서사에 나타난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들<br>발 표 자: 송애리(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br>토 론 자: 권누리(서울 서래초) | 조주현<br>(목포대) |
| 17:20-17:30 | 휴 식 | |
| 17:30-18:00 | 종 합 토 론 | 박병춘<br>(전주교대) |
| 18:00-18:30 | 정 기 총 회 및 감 사 보 고 | 김현수<br>(본회<br>총무이사,<br>부산대) |
| 18:30 | 폐 회 식 및 송 년 회 | 윤건영<br>(본회<br>회장,<br>청주교대) |

# 목 차

▣ ·····사회: 김현수(본회 총무이사, 부산대)
▣ 개회사: 윤건영(본회 회장, 청주교대 총장)
▣ 환영사: 정창우(서울대, 인성교육연구센터장)

▣ 첫 번째 발표 ·····사회 : 정창우(서울대)
○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
발표자: 석자춘(서창중) ····· 2
토론자: 권재은(인천 숭의초) ····· 12

▣ 두 번째 발표 ·····사회 : 김형렬(서울대)
○ 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연구
발표자: 신종섭(군포고) ····· 14
토론자: 신호재(공주대) ····· 27

▣ 세 번째 발표 ·····사회: 조주현(목포대)
○ 미국 고등학생의 마틴 루터킹의 날 기념 서사에 나타난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들
발표자: 송애리(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33
토론자: 권누리(서울 서래초) ····· 47

▣ 종합토론 ·····사회: 박병춘(본회 전 회장, 전주교대)
▣ 정기총회 및 감사보고 ·····사회: 김현수(본회 총무이사, 부산대)
▣ 폐회식 ·····윤건영(본회 회장, 청주교대 총장)

#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석 자 춘 (서창중학교)

## Ⅰ. 서 론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을 둔 도덕 모델은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기 곤란한 형국에 직면하고 있다. 도덕심리학적 접근의 최근 관점에 따르면, 도덕인지와 도덕정서는 동등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덕성에 관여된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 이르기까지 도덕성 이론은 무의식, 관찰 가능한 행동, 도덕인지 우위, 도덕인지 우위에 대한 반론으로서 도덕정서 우위, 선형적인 도덕발달론에 대한 반론으로서 영역특수적인 도덕발달론 등을 통해 이론적 변화를 격어 왔다. 반면, 진화론에 기반을 둔 도덕 모델에 따르면, 정서적 직관은 도덕성에 개입되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그 정서적 직관을 우위에 두는 관점은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 중에서 자신들의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유리한 측면만을 이론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 모델로서 양측 진영의 관점은 갈등 및 충돌의 국면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러한 국면과 관련하여 그 두 진영 사이의 상호비판은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진영이 지닌 공통의 한계를 분석 및 평가하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먼저, 마음의 층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두 접근방식을 분석한 후 그 공통의 한계를 탐색한다.[1] 특히, 마음의 층위와 관련하여, 도덕인식론은 질적 수준이 높은 도덕판단에 대한 설명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차지한다.[2] 아울러, 동양의 사유전통을 고려할 때 도덕성에 관여되는 마음의 폭과 깊이는 도덕심리학 및 진화론이 기대고 있는 의식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의 층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그 양측 진영의 사유패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 두 진영의 사유패턴이 직면하는 공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체화된 도덕성 모델을 제안한다. 나아가서, 체화된 도덕성 모델에 기반 한 도덕교육 방법을 모색한다.

---

1) 단, 이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나바에즈(D. Narvaez)의 도덕발달론은 본 연구의 도덕교육 방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별론으로 다룬다.

2) Jeong, C. (2003),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pistemological beliefs and moral judgment as a psychological foundation for mor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Ⅱ. 마음의 포괄적 층위

마음의 층위는 ‘심층마음(Deep Mind), 표층의식(Surface Consciousness), 초월의식(Transcendental Consciousness)’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로서, 심층마음의 자취는 동양의 사유패턴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불교(佛敎), 유가(儒家), 도가(道家)는 그 사유내용 너머의 사유패턴에 있어서 상통하는 측면을 지닌다. 그 측면[3]은 심층마음으로 범주화 될 수 있다. 그 심층마음은 언어의 논리적 구조에 기반을 두는 감각적 틀과 사려분별의 틀에 얽매이거나 의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활동성은 어떠한 대상의 출현 혹은 사라짐과 무관하게 명료한 자각 혹은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나아가서, 명료한 자각 혹은 깨어있는 마음은 표층의식에서 전개되는 의식의 흐름을 매순간 온전히 알아차리는 활동성으로 이어진다.

마음의 층위와 관련한 두 번째 범주로서, 표층의식의 자취는 서구 도덕철학의 사유패턴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표층의식은 어떠한 대상이 출현하면 활성화되며 그 대상이 사라지면 비활성화 된다. 즉, 대상 의존적인 작용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는 의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비의도적·자동적·무의식적으로 촉발될 수도 있다. 즉, 의식화되는 영역과 의식화되지 않는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의식화되는 영역은 언어에 기반 한 사려분별작용을 통해 작용하는 인지(cognition) 및 이성(rationality)의 활동과 가깝다. 이와 관련한 서구 도덕철학의 사유패턴으로서, 도덕성의 근거는 개인의 쾌락과 이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하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될 수 있다.[4] 혹은 그 쾌락과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성의 근거가 마련될 수도 있다.[5] 그리고 잠재의식의 영역은 의식이전(subconsciousness)의 수준에서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느낌(feeling), 감정(emotion), 정서적 직관(affective intuition)의 작용과 가깝다. 이와 관련한 서구 도덕철학의 사유패턴으로서, 도덕성은 생리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쾌락의 충족 여부에 의존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6] 혹은 도덕성의 정당화 근거가 상대적인 사회문화적 규범이 정서적 직관의 수준에서 내면화되는 측면에 설정될 수도 있다.[7]

마음의 층위와 관련한 세 번째 범주로서, 초월의식의 자취 역시 서구 도덕철학의 사유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월의식은 생리적 경향성에 의존하는 본능과 정서 및 이해타산적인 사려작용을 넘어서는 의식작용에 가깝다. 이와 관련한 서구 도덕철학의 사유패턴으로서, 도덕성

---

3) 심층마음의 이러한 사유패턴은 불교에서 ‘아뢰야식 그 자체 즉 일심(一心), 여래장(如來藏), 공적영지(空寂靈知), 본각(本覺)’으로, 유가에서 미발(未發)시 성(性)으로서 ‘사려미맹(思慮未萌)·지각불매(知覺不昧) 즉, 허령불매(虛靈不昧)’로, 그리고 도가에서 ‘명(明)’으로 명명된다.

4) 합리적 선택론, 사회계약론 등.

5) 공리주의.

6) 윤리적 쾌락주의 및 윤리적 상황주의 등, 극단적인 형태로서 강한 이모티비즘(emotivism).

7) 주관주의와 관례주의로서 윤리적 상대주의.

의 근거는 생리적 경향성에 의존하는 의식작용에 앞서는 영역에 마련된다. 즉, 생리적 경향성의 인과메커니즘에 얽매이지 않는 선험적인(a priori) 의식의 영역에 설정될 수 있다.[8] 혹은 의식을 지닌 인간 존재를 포함한 경험적 현상계 자체를 넘어서는 초월적 실체의 영역에 마련될 수도 있다. 그 초월적 실체는 생멸변화를 넘어 불멸을 지향하는 이데아(Idea) 혹은 인격신(a personal God)으로 설정되기도 한다.[9]

## Ⅲ. 도덕심리학 및 진화론적 접근과 마음의 층위 사이의 관계

이상에서 논한 마음의 포괄적 층위 즉, '심층마음, 표층의식, 초월의식' 에서 바라볼 때, 도덕심리학적 접근의 사유패턴은 표층의식과 초월의식을 중심으로 도덕성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에 국한되어 도덕성에 접근하는 흐름과 관련하여, 도덕성의 형성은 사회문화적 규범이 무의식의 수준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10] 혹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에 강화물(reinforcer)이 수반된 결과 그 행동이 자동화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11] 뿐만 아니라, 도덕성은 규칙에 대한 태도로 간주기도 한다. 그 태도는 일련의 발달과정을 지나간다.[12] 즉, 그 태도는 성인이 규정한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발달 국면을 경유한다.[13] 이 국면은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과 관련된다. 이어서, 규칙에 대한 태도는 상호합의를 통한 구성의 결과물로 변화된다.[14] 이 변화는 표층의식의 의식적 차원과 관련된다. 나아가서, 그 규칙의 이상적 상태는 관계 및 사회조직을 넘어 보편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된다.[15] 이 변화는 초월의식과 관련된다. 결국 도덕성을 규칙에 대한 태도로 간주하는 관점은 표층의식과 초월의식의 차원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16]

---

8) 칸트의 순수실천이성(pure practical reason, reine praktische vernunft) .

9) 플라톤(Platon)의 선의 이데아와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의 하나님을 지향하는 지성적 인식.

10) 프로이트(S. Freud)의 관점.

11) 스키너(B. F. Skinner)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주의(behaviorism)의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의 원리.

12) 피아제(J. Piaget) 및 콜버그의 관점과 관련된다.

13) 파아제의 도덕발달론에서 전조작 국면(preoperational thought)의 인지발달 수준에 의존하는 타율적 도덕성(heteronomous morality) 국면과 관련되며,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에서 법과 질서 준수 지향의 도덕성(social accord and system maintenance) 단계와 관련된다.

14) 파아제의 도덕발달론에서 구체적 조작(concrete operational thought) 국면의 인지발달 수준에 의존하는 평등주의를 향한 진척의 시기 국면과 관련된다.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에서 사회계약 및 공리성과 개인 권리 지향의 도덕성(social contract, utility, individual rights) 단계와 관련된다.

15) 파아제의 도덕발달론에서 형식적 조작 국면(formal operational thought)의 인지발달 수준에 의존하는 자율적 도덕성(autonomous morality) 국면과 관련된다. 그리고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에서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의 도덕성(universal ethical principles) 단계와 관련된다.

16) 사회영역이론(social domain theory)으로 범주화 될 수 있는 튜리엘(E. Turiel) , 누치(L. P. Nucci)

이와 같은 초월의식을 도덕성의 본질로 규정하는 관점에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도덕성의 본질은 추상적 원리가 아닌 구체적 맥락을 전제한 관계성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이상적 자아는 자기 스스로를 관계적 존재로 이미지화하는 것이다.[17] 이러한 수준의 이상적 자아로 발달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나는데, 자연적인 배려(natural caring)는 자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촉발되는 배려의 감정상태이다. 자연적 배려의 감정은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과 관련된다. 자연적인 배려의 감정을 기반으로 배려를 실천하며 배려를 받는 과정이 기억에 점진적으로 누적된다. 그 결과 배려는 자아의 의식에 일종의 정체성으로 자리잡는다. 즉,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ethical caring)로 고양된다. 이때 자아는 윤리적 문제상황을 관계성으로 파악하며, 배려하는 자아상에 기반을 두고 타인의 곤경에 참여한다. 이러한 태도는 표층의식의 의식적 차원과 관련된다. 결국 도덕성을 관계성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과 의식적 차원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도덕심리학적 접근에 이어서,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 모델의 사유패턴은 표층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도덕 모델에 따르면, 도덕성은 개체 및 개체가 지닌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하는 수단이다.[18] 그 결과 도덕성은 진화의 메커니즘으로서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나아가서, 자연선택의 과정에서 도덕성은 유전자에 코딩 즉 부호화된다. 그래서 그 활성화의 양태는 자동적·무의식적이다. 이러한 활성화의 양태는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과 관련된다. 뿐만 아니라, 그 도덕성의 내용은 일련의 도덕모듈(moral module)로 구체화 된다.[19] 특히, 특정 영역의 도덕모듈을 공유하는 개체들은 그들 끼리 집단을 이뤄 결속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인간은 내집단편향적인 이타성(groupish)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내집단편향적인 이타성[20]은 이질적인 집단들 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일련의 오류[21]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오류가 공중적 차원의 쾌락을 계산하는 도구적 이

---

등의 입장은 발달론과 관련하여 선형적인 도덕발달론에 반론을 제기하며 도덕발달을 영역 특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콜버그(L. Kohlberg)의 입장은 계승되고 있다. 아울러, 레스트(J. Rest)를 중심으로 하는 네오콜버그 학파(Neo-kohlbergian)는 콜버그의 단계이론을 도덕스키마이론(moral schemas)으로 수정 및 보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콜버그의 입장은 상당부분 유지된다. 이와 같이 콜버그의 입장은 후기 이론에 여전히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영역이론과 네오콜버그 학파의 이론적 사유패턴 역시 표층의식과 초월의식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7) 길리건(C. Gilligan)과 나딩스(N. Noddings)의 관점과 관련된다.

18) 결국 도덕성은 생존과 번식의 성공 가능성으로서 적합도(fitness)을 지향한다.

19) 하이트(J. Haidt)의 사회적 직관주의(social intuitionism) 모델.

20) 그린(J. Greene)은 이중처리 도덕성(dual-process morality) 모델에서 이러한 유형의 이타성에 기반한 도덕을 상식도덕(commonsense morality)으로 명명한다.

21) 여기서 오류란, 이질적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장기적 관점에서 내집단 전체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관점으로서 오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상식도덕은 유용성(utility)을 확보하는데 실패한다.

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관점[22]이 출현하기도 한다. 이 관점은 표층의식의 의식적 차원과 관련된다. 결국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 모델의 사유패턴은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에 기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표층의식의 의식적 차원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셈이다.

## Ⅳ. 도덕심리학 및 진화론적 접근의 한계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모델이 직면하는 공통의 한계를 도출할 수 있다. 도덕성은 마음을 배경으로 한다. 그 마음의 층위는 표층의식 및 초월의식과 더불어 심층마음을 포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모델은 도덕성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표층의식과 초월의식으로 편향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 결과 심층마음이 간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직관과 인지가 유기적으로 얽혀서 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개연성이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표층의식과 관련된 정서적 직관 및 도구적 이성으로 편향된다. 혹은 초월의식과 관련된 이성의 작용 즉, 생리적 경향성을 통제하기만 할 뿐 그 생리적 경향성에 휘둘리지 않는 의식작용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적 직관은 이원화되어 유리된다.[23] 나아가서, 정서적 직관 및 도구적 이성으로 편향되는 도덕성은 생리적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리고 생리적 경향성을 넘어 보편적 관점을 지향하는 이성은 생리적 감정과 느낌을 지닌 도덕주체의 실존성과 유리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모델이 직면하는 한계는 '심층마음에 대한 간과', '인지와 정서의 유기적 통합에 대한 간과', '생리적 현상으로 환원되거나 생리적 현상으로부터 유리되는 도덕성 지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 Ⅴ. 체화된 도덕성 모델에 대한 서구 및 동양의 관점

이러한 일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체화된 도덕성 모델(Embodied Morality Model)이 제안될 수 있다. 체화된 도덕성 모델과 관련한 서구의 관점에 따르면[24], 체화된 도덕성은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을 기반으로 한다. '체화된 마음'을 구체화하자면, 앎은 신체로서 '몸'을 매개로 '뇌'에 기반한 의식작용과 '환경적 맥락' 사이의 유기적 앙상블을 통해서 창발한다. 그 창발(emergence)의 과정에서 앎은 역동적으로 구성 및 재구성된

22) 그린은 이러한 관점과 관련된 도덕을 메타도덕(metamorality)으로 명명한다.

23) 물론 레스트를 중심으로하는 네오콜버그 학파는 인지와 정서의 통합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와 정서는 독립된 구인으로 설정되어 도덕기능(moral functioning)에 관여되는 심리적 과정의 요소들로 간주된다.

24) 존슨(M. Johnson)과 레이코프(G. Lakoff)의 관점이 대표적이다.

다. 결국 앎은 인식주관의 주관적 표상 내에서만 성립하거나 인식대상에 객관적으로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일련의 의미체계로 구성되는 셈이다. 그래서 체화된 마음의 관점에 따른 앎의 구성과정은 '뇌 — 몸 — 환경'으로 도식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앎의 구성과정에서 신체로부터 촉발되는 정서적 직관과 인지작용은 유기적으로 얽혀서 앙상블을 이룬다. 결국 정서적 직관의 바탕으로서 몸(body)과 인지작용으로서 마음(mind)은 이원화 될 수 없는 하나의 공명체계인 셈이다. 나아가서, 신체를 경유하는 정보는 뇌의 피질하 영역(sub-cortical area)으로 수렴되어 정서적 직관의 촉발에 관여되며, 뇌의 신피질 영역(neo-cortex)은 인지작용에 관여된다. 그래서 신경상관물(neural correlates)의 수준에서 체화된 마음은 피질하 영역과 신피질 영역의 유기적 통합에 기반을 둔다. 특히, 피질하 영역은 우뇌와 상대적으로 강한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피질 영역은 좌뇌와 상대적으로 강한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화된 마음은 좌뇌와 우뇌의 통합을 지향한다.

이상에서 논한 체화된 마음을 바탕으로 체화된 도덕성이 창발한다. 체화된 마음을 기반으로 앎이 구성될 때, 공감에 관여되는 뉴런[25]을 매개로 정서적 직관과 인지작용은 앙상블을 이룬다. 그 결과 앎은 공감적 추론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추론은 논리적 추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은유적 사고에 가깝다. 그래서 도덕적 문제상황에 관여되는 일련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투사적으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도덕주체는 의미를 구성 및 재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투입하기도 한다. 결국 체화된 도덕성은 일련의 도덕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상황을 다루는 셈이다. 물론 투사적 연결로서 도덕적 시뮬레이션의 바탕에는 공감이 스며든다. 도덕적 시뮬레이션으로서 도덕적 문제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련의 스키마[26]가 잠정적으로 구성된다. 만약 도덕주체가 직면하는 문제상황의 패턴이 기존의 스키마에 자리 잡고 있는 패턴과 유사하다면, 그 문제상황은 정서적 직관에 기반하여 의식이전(subconsciousness)의 차원에서 신속하게 다뤄진다. 반면, 그 유사성이 낮다면, 새로운 문제상황은 사려에 기반한 숙고를 통해 신중하게 다뤄진다.

그런데 체화된 도덕성 모델과 관련한 서구의 관점은 미진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서구의 관점은 표층의식의 차원에서 체화된 도덕성에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도덕적 시뮬레이션에 관여되는 스키마는 일종의 정서적 직관의 틀과 인지적 사고틀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서적 직관 및 사고 프레임은 각각 표층의식의 잠재의식 차원 및 표층의식의 의식적 차원과 관련된다. 아울러, 정서적 직관의 틀과 인지적 사고틀은 각각 피질하 영역으로서 뉴런 집단과 신피질 영역으로서 뉴런 집단을 신경상관물(neural correlates)로 참조한다. 신경상관물의 작용 역시 표층의식과 관련된다. 그런데 표층의식에서 이뤄지는 신경생리적 작용과 정서적 직관 및 인지적 사고로서 스키마는 그 활성화 패턴에 있어서 고착화될 개연성이 있다. 그 결과 도덕주체는 고

25) 거울뉴런(mirror neuron)과 뇌섬엽(insula)

26) 존슨과 레이코프는 이러한 유형의 스키마를 '이미지 스키마(image schema)'로 개념화 한다.

착화된 스키마로 인해 유연성을 상실하고 일련의 사태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주체의 정서적 직관과 인지는 유리되며, 정서적 직관의 작용으로 편향되거나 정서적 직관과 절연되어 무미건조한 인지작용으로 편향될 수 있다.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왜곡된 해석으로 가득 찬 과거와 미래로 치닫는다.[27] 결국 몸과 마음이 온전한 앙상블을 이루지 못하고 유리되는 셈이다. 몸과 마음의 분리는 심리적 괴로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상의 한계는 동양의 사유패턴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선결논의로서 서구의 체화된 마음과 동양의 사유전통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대한 동양의 관점은 체화된 마음의 원리와 상통하는 측면을 지닌다. 유가의 담론에 따르면, 몸을 매개로 마음으로서 심(心)과 일련의 사태로서 맥락은 접촉한다. 이 과정에서 예(禮)를 통해 신체로서 몸을 섬세하게 다듬는 수양의 과정이 쌓이면 도덕심(道德心)이 함양된다. 그리고 불교의 담론에 따르면, 식(識)으로서 마음은 감각기능[28]으로서 신체를 매개로 사유기능[29]과 세계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다. 결국 유가와 불교의 사유패턴은 체화된 마음의 기반이 되는 도식 즉, 뇌 — 몸 — 환경' 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셈이다. 나아가서, 동양의 사유전통은 심층마음으로서 사유패턴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체화된 도덕성에 대한 동양의 관점은 표층의식 수준의 체화를 넘어 심층마음 측면의 체화를 포괄하고 있다.[30]

심층마음을 포괄하고 있는 동양의 사유전통을 기반으로, 체화된 마음에 대한 서구의 관점이 지니는 한계는 보완될 수 있다. 앞서 논하였듯이, 심층마음은 표층의식에서 작용하는 정서적 직관의 틀과 인지 혹은 인지적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한 정서적 직관 및 인지적 사고틀의 활성화 상태를 매순간 알아차리는 활동[31]에 관여된다. 이러한 마음의 활동성을 통해, 도덕주체는 정서틀과 사고틀이 유리되어 각각 왜곡된 방식으로 사태를 느끼고 해석하는 고착화된 정신패턴으로부터 마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2] 마음의 공간이 확보되는 순간, 균형

---

27) 이러한 현상은 마음의 방황(mind wondering) 으로 개념화 될 수 있다. 이 개념은 뇌의 디폴드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28) 6근(根) 중에서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과 관련된다.

29) 6근(根) 중에서 의(意)과 관련된다.

30) 이와 관련한 근거로서, 성리학(性理學)은 체인(體認)을 미발(未發)의 중(中)으로 규정한다.

31) 이러한 마음의 활동성은 불교의 마음챙김(mindfulness)에 기반한 선정(禪定)과 지혜(知慧)의 통합, 유가의 경(敬)을 바탕으로 한 미발(未發)시의 신독(愼獨)과 이발(已發)시의 체찰(體察), 도가의 위무위(爲無爲)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32) 그래서 심층마음을 포괄하는 체화된 도덕성으로서 앎은 명제적 지식을 넘어서는 '윤리적 노하우(ethical know-how)' 로 범주화 될 수 있다. 체화된 마음의 관점에서 앎은 '노하우' 로서 방법적 및 조건적 지식에 가깝다. 왜냐하면 앎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신체를 매개로 주체의 내적상태와 외부의 맥락이 얽혀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앎은 구체적 맥락에서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한다. 그런데 체화된 도덕성의 심층마음 측면을 고려할 때, 그 앎은 기능적 수준의 노하우를 넘어서는 윤리적 노하우로 범주화 될 수 있

을 상실한 정서적 직관 및 인지적 사고의 프레임은 조화를 이뤄 유기적으로 통합된다. 이러한 통합의 기제와 관련하여, 심층마음의 활동성으로 진입하면, 정서에 관여되는 신경상관물은 고요한 안정과 더불어 명료한 자각상태를 촉발시키는 방향으로 항상성을 재조정한다.[33] 이어서, 인지적 사려작용과 유리된 정서적 지각은 그 연결성을 회복한다. 그 결과 정서적 직관과 인지적 사려작용은 온전한 유기적 통합의 상태를 확보한다. 이러한 수준의 통합은 도덕적 시뮬레이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심층마음의 활동성은 표층의식이 논리적으로 건전하며 타당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한 양질의 토양인 셈이다.

## Ⅵ. 체화된 도덕성 모델에 기반한 도덕교육 방법

이상의 논의에 기반할 때, 정련된 체화된 도덕성 모델은 세 측면 즉, ‘신경상관물, 표층의식, 심층마음’으로 구성될 수 있다. ‘신경상관물의 측면’에서, 중추신경계의 상위 구조로서 신피질과 하위구조로 피질하 영역은 통합적인 기능적 연결성을 이룬다. 아울러, 피질하 영역에서 정서적 안정과 명료한 자각상태에 관여되는 뉴런집단[34]은 공명체계를 구축한다. ‘표층의식의 측면’에서, 정서적 직관과 인지적 사려작용은 유기적인 통합의 상태로 나아간다. ‘심층마음의 측면’에서, 마음의 활동성은 표층의식 측면과 신경상관물의 측면에서 이뤄지는 신경생리적 작용과 의식의 흐름을 순간순간 알아차린다. 여기서 알아차림으로서 마음활동은 자동적, 습관적, 무의식적으로 촉발되는 정서 및 인지적 스키마에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35]이다. 즉, 마음챙김(mindfulness)의 상태를 지향한다. 나아가서, 이상의 세 측면 각각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다. 즉, 피질하 영역과 신피질의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정서적 직관과 인지적 사려작용은 온전한 통합적 관계를 구성한다. 그 결과 심층마음의 상태로 진입하는 수월성이 마련된다. 역으로[36] 심층마음의 상태로 진입하면, 정서적 직관과 인지적 사려작용

---

다. 왜냐하면 심층마음의 활동성을 통해 표층의식 차원에서 노하우가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순간순간 조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주체는 어떠한 체험적 사태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할 때 발생하는 고착화된 정서 및 사고패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33) 최근 과학적 연구는 심층마음의 활동성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바렐라(F. C. Varela)의 제자 톰슨(E. Thompson)은 인지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 및 현상학(phenomenology) 등 학제적 접근을 통해 체화된 마음의 연장선에서 불교의 명상전통을 탐구한다. 아울러, 마음챙김의 상태에서 인지와 정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과학적 메커니즘은 시겔(D. J. Siegel)이 Aware: the science and practice of presence: a complete guide to the groundbreaking wheel of awareness meditation practice에서 전개한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34) 이와 관련한 뉴런집단은 교감신경(sympathetic nerve)과 부교감신경(parasympathetic nerve)으로서, 두 신경망은 공명관계를 이뤄 각각 정서적 안정과 명료한 각성상태에 관여된다.

35) 카밧진(J. Kabat-Zinn)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이러한 방식의 알아차림은 비판단적 주의기울기(non-judgmental awareness)로 개념화 될 수 있다.

36) 이러한 과정의 메커니즘은 나바에즈(D. Narvaez)의 삼층윤리메타이론(Triune ethics meta-theory과 마음챙김 도덕(Mindful morality)에 대한 발달론적 관점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사이의 유기적 앙상블은 더욱 견고해진다. 그 결과 피질하 영역과 신피질 영역의 통합 역시 수월하게 이뤄진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할 때, 도덕교육 방법과 관련된 동양과 서구의 다양한 입장은 '신경상관물, 표층의식, 심층마음'의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성 될 필요가 있다. 신경상관물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정서[37]를 비롯한 감각 및 운동에 관여되는 뉴런집단[38]의 질적인 발달이 인지작용에 관여되는 뉴런집단의 질적인 발달을 앞서는 시기에 놓여있다. '중학교' 시기는 인지작용에 관여되는 뉴런집단의 질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지작용에 관여되는 뉴런집단[39]과 정서작용에 관여되는 뉴런집단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은 취약하다.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면, 인지작용에 관여되는 뉴런집단과 정서작용에 관여되는 뉴런집단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40]이 상당부분 원만해진다.

표층의식 측면에서 이뤄지는 도덕교육은 이러한 신경상관물 측면의 발달 패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단계는 정서적 직관을 우선적으로 경유하여 인지적 사려작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도덕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경쟁적이 아닌 지지와 협력 및 배려에 기반한 교수학습 분위기는 이러한 적절성에 부합한다. 또한 교수학습의 설계는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동기화,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윤리적 기술[41]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윤리적 판단과 관련된 윤리적 기술의 함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중학교' 단계에서 도덕교육은 정서적 직관과 인지적 사려작용의 유기적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그 실질적인 유기적 통합은 심층마음의 활동성으로 진입할 때 이뤄진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정서적 직관과 인지적 사려작용의 발달적 취약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설계는 윤리적 기술의 4영역[42] 가운데 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도덕교육은 윤리적 기술을 적극적으

---

37) 피질하영역(sub-cortical area)과 관련하여, 뇌간(brain stem) 및 변연계(limbic system) 관련 피질.

38) 신피질(neo-cortex) 영역과 관련하여, 두정피질(parietal cortex), 측두피질(temporal cortex), 후두피질(occipital cortex).

39)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40) 기능적 연결성은 뉴런집단 사이를 이어주는 축삭(axon)다발에서 이뤄지는 전기적 신호의 전달 속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확산텐서영상(Diffusion tensor imaging)을 통해 측정되는 분획 이방성(fractional anisotropy; FA) 수치는 백질의 활동성이 증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백질을 타고 흐르는 물분자의 이동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FA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질 영역들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성이 원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1) 나바에즈는 윤리적 기술(ethical skill)에 대한 교수학습을 통해 체화된 도덕성(embodied morality)의 함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체화된 도덕성과 관련하여 나바에즈의 도덕교육론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2) 윤리적 민감성(ethical sensitivity), 윤리적 판단(ethical judgement), 윤리적 동기화(ethical motivation), 윤리적 행동(ethical action)

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교수학습의 설계는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도덕적 시뮬레이션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심층마음 측면에서 이뤄지는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도덕적 메타인지(moral meta-cognition)[43] 역량이 요구된다. 도덕적 메타인지는 윤리적 기술을 구현하는 의식의 흐름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점검하는 마음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도덕적 메타인지가 결여되면 윤리적 기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오류나 도덕적 난관에 휩쓸리게 된다. 그래서 도덕적 메타인지를 통해 윤리적 기술의 실행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교수학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단계에 걸쳐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서, 신경상관물의 발달 패턴과 심층마음에 대한 동양의 수행론[44]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신체적 감각과 정서를 중심으로 매순간의 알아차림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신체적 감각 및 정서를 포함하여 인지적 사고활동에 대한 마음챙김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마음챙김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의 설계는 이러한 발달 적절성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45]

## Ⅶ. 결 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먼저, 마음의 층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 한 도덕 모델이 직면하는 공통의 한계를 탐색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함의로서, 서구의 도덕성 관련 논의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자세가 요구된다. 도덕성에 접근하는 서구의 담론은 상당부분 표층의식과 초월의식에 편향되는 패턴을 보인다. 도덕성 담론이 표층의식으로 편향되면, 도덕성의 본질과 기원이 생리적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곤경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성 담론이 초월의식으로 편향되면, 도덕성의 실천과 관련한 과제에서 생리적 작용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체의 상태에 기반하여 촉발되는 정서적 느낌이 삶의 저변에 자리집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의 실존적 측면과도 유리된다. 그 결과 도덕주체는 초월적 실체 혹은 신에 의해 규정된 이념의 틀에 종속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표층의식 혹은 초월의식으로 편향되는 도덕성 담론은 자유의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흠결을 가하는 셈이다. 따라서 서구의 도덕성 담론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

43) 나바에즈의 마음챙김 도덕에 대한 관점은 도덕적 메타인지 기술(moral meta-cognitive skill)을 기반으로 한다.

44) 특히, 불교 유식론(唯識論)의 유식오위(唯識五位)에 따르면, 알아차림의 과정은 감각작용의 측면에서 의식작용의 측면으로, 이어서 이러한 감각 및 의식작용의 원천으로서 자아의 측면으로 심화된다. 유가의 담론에서, 경(敬)으로서 알아차림의 활동은 일련의 사태와 접하기 이전의 영역과 사태와 접한 이후의 영역 모두에서 이뤄진다.

45)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자기의식에 관여되는 전전두엽의 질적인 발달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발달국면으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다음,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 한 도덕 모델이 직면하는 공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체화된 도덕성 모델을 탐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함의로서, 체화된 도덕성 모델은 그 공통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체화된 도덕성 모델은 심층마음을 고려하여 도덕성에 접근한다. 그리고 인지적 사려와 정서적 직관의 유기적 얽힘을 기반으로 도덕적 시뮬레이션활동을 전개한다. 나아가서, 심층마음의 활동성이 마음의 내적 조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초월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는 도덕성 담론이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그 심층마음의 활동성으로서 마음의 내적 조건을 통해서, 고착화된 정서적 틀과 인지적 틀로 인해 감정과 사고가 왜곡된 방식으로 증폭되는 곤경으로부터 휩쓸리지 않을 자유가 확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화된 도덕성 모델을 기반으로 도덕교육 방법을 탐색하였다.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함의로서, 도덕성은 고착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으로 함양될 수 있다.[46] 표층의식의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은 언어라는 집에 자리 잡고 있다. 언어의 논리체계에 기반하여 감각적·인지적 틀이 구성된다. 그래서 누구나 세계를 해석하는 자기만의 해석틀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해석의 틀이 고착화되면 일련의 사태를 있는 그대로 포착하기보다는 자동적·습관적·무의식적으로 사태를 왜곡시켜 파악한다. 그 결과 성난 파도처럼 감정은 요동치며, 인지는 정서와 유리된다. 이로 인해 도덕주체는 심리적 괴로움은 물론이고 도덕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난관에 직면한다. 하지만 표층의식의 마음활동을 통해 자동적·습관적·무의식적으로 촉발되는 의식의 흐름을 순간순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도덕교육의 과정이 훈습되면, 세계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는 앎의 틀로부터 휩쓸리지 않는 마인드세트가 함양될 수 있다.[47]

46) 드웩(C. S. Dweck)의 개념을 변용하자면, 이러한 함의는 도덕적 성장 마인드세트(moral growth mindset)로 범주화 될 수 있다.

47) 이러한 도덕적 성장 마인드세트는 신경상관물(neural correlates)의 측면으로서 뉴런집단 사이의 연결성 및 활성화 패턴뿐만 아니라, 뉴런집단의 구조적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토론

권 재 은 (인천숭의초등학교)

체화된 도덕성 모델을 기반으로 도덕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신 석자춘 박사님의 소중한 연구 결과물을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석자춘 박사님의 “도덕교육의 체화적 접근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신 학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심층마음(Deep Mind), 표층의식(Surface Consciousness), 초월의식(Transcendental Consciousness)’ 의 마음 층위를 기반으로 도덕심리학과 진화론적 접근의 한계를 밝히고, 서구와 동양의 체화된 도덕성 모델(Embodied Morality Model)의 필요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경상관물, 표층의식, 심층마음’ 측면에서 학생의 발달 시기에 따른 도덕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체화된 도덕성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앞으로의 많은 연구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발표자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의 체화된 도덕성과 관련된 도덕적 시뮬레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체화된 도덕성에 대한 서구의 관점이 표층의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도덕적 시뮬레이션은 활성화 패턴에 있어서 고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도덕적 주체는 이로 인하여 유연성을 상실하고 일련의 사태를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향이 나타나고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기에 해당 한계점을 바탕으로 동양 사유 패턴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도덕적 시뮬레이션은 인지적-의지적-정서적 시뮬레이션으로서 상상적 투사를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의 다양한 행위 방향을 생각해봄으로써 앞서 언급된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시뮬레이션은 갈등이나 긴장 속에 있는 다양한 충동이나 관심, 가치를 표출하게 하고 그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심지어 제거하는 수준을 느낌을 통해 경험하게 해줍니다.[48] 즉, 도덕적 시뮬레이션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파악하고 긴장을 해소해주는 과정을 포함하여 표층의식에서 작용하는 정서적 직관의 틀이나 인지적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도덕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관과 사고의 활성화 상태를 알아차리고, 가정해 왔던 편향적 믿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반성적 숙고의 과정인 도덕적 시뮬레이션이 사고가 편향되지 않게 하는 마음챙김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시뮬레이션은 심층마음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8) Johnson, M.(2014), Morality For Hum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둘째, 마음의 층위 및 도덕교육 방법의 범주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마음의 층위를 동양의 사유 전통과 서양의 도덕철학적 접근의 사유 패턴에 기반하여 '심층마음·표층의식·초월의식'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도덕심리학적 접근과 진화론에 기반한 도덕 모델의 한계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표층의식과 심층마음을 포괄하는 체화된 도덕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는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포괄적인 마음 층위가 관련 이론들을 분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체화된 도덕성과 마음의 한 층위인 초월의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는 도덕교육 방법을 '신경상관물·표층의식·심층마음'의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주셨습니다. 표층의식과 심층마음에서 나타나는 신경상관물에 관한 논의를 자세히 해주셔서 저 역시 표층의식과 심층마음에 관여되는 신경상관물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경상관물이 두 마음 층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께서 도덕교육 방법을 구성하실 때 신경상관물을 표층의식, 심층마음과 별개로 분류하시어 세 측면으로 제시하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토론자가 제시한 질문들은 논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체화된 도덕성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도덕교육 방법을 제시해 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 발표 진행 순서

목차

1 문제 의식

2 연구 방법

3 연구 요지

4 연구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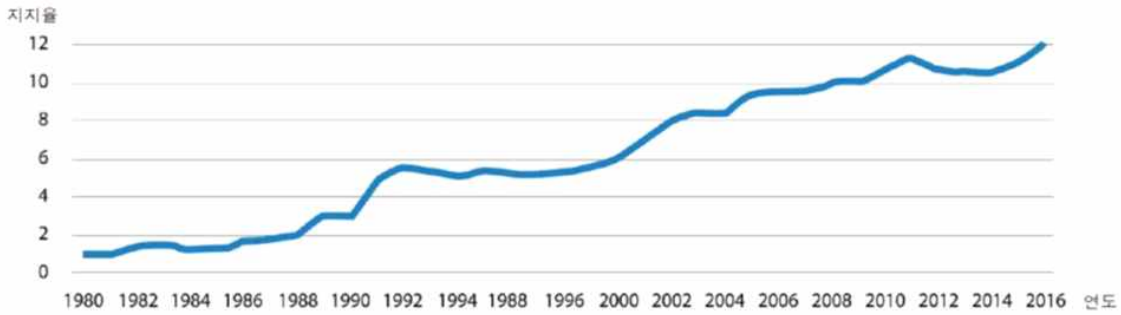
5 최근 시사점

## 2 문제 의식

### 1 자국우선주의 시대의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조화 가능성?

**(1) 反다문화주의로의 회귀 : 독일, 프랑스, 영국 총리의 다문화 정책 비판,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가결, 자국 우선주의, 극우 포퓰리즘, 민족주의의 부흥**

**(2) 세계화 시대의 애국주의, 자국우선주의 시대의 세계시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그림 1] 서유럽의 급진적 극우정당의 부상 현황(1980-2016)

(출처: Milačić & Vuković (20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4에서 재인용)

## 2 문제 의식

### 2 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조화를 이루는가?

**(1) 기존 교과서 서술 방식 : 소극적 조화(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는 서로의 극단화 방지하고 문제점을 줄여줌)**

**[소극적 조화의 교과서 서술 예시]**
우리는 맹목적 애국주의와 극단적 세계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주의와 애국주의를 상호 보완하고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우선, 세계화 시대를 사는 세계시민으로 서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편협한 애국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 또한 민족이나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정도의 극단적 세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이처럼 맹목적 애국주의와 극단적 세계주의에서 벗어날 때, 애국주의와 세계주의는 상호 보완의 가능성이 열린다.(천재교육, 2012 : 275)

**(2) 적극적 조화 필요 : 상호 발전적 관계가 성립되는 정치철학적 토대 제공**
**: 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가 서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는 관계임을 정치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구성이 필요**

## 2 문제 의식

### 3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관련 2015개정『윤리와 사상』집필기준

(1) 애국주의 : 애국심에 관하여 공화주의의 대승적. 자발적 사랑, 자유주의의 헌법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애국심 등을 비교하여 기술한다.
(교육부, 2015 교과서 집필기준: 66)

→ 어떤 애국주의, 어떤 세계시민주의인가에 따라 두 사상의 조화가 어려울 수 있다.

(2) 세계시민주의 : 지구적 협력과 해외원조에 대한 입장들(국제주의, 세계시민주의 등)을 비교해 보고,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집필한다. (교육부, 2015 교과서 집필기준: 67)

→ 어떤 세계시민주의인가에 따라 지구적 협력,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등이 다를 수 있다.

## 6 연구 목적

### 1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coherence) 탐구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간에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된 부분이 적고, 실천적으로 경합하는 부분이 적은가를 탐구함

→ 어떤 애국주의와 어떤 세계시민주의가 상호 발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정치철학적으로 탐구함

### 2 두 사상의 정합성이 도덕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1)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논증
(2) 정합성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향
(3)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주는 함의

7

# 연구 방법

## 1 애국주의 분류와 대표 사상가 선정

### (1) 애국주의 분류

| 보편적 의무 / 역사 및 문화 | |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 |
|---|---|---|---|
| | | 인정 | 불인정 |
| 자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사랑 | 강조 |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 | 비(非) 강조 | 자유주의적 애국주의 | |

8

# 연구 방법

## 1 애국주의 분류와 대표 사상가 선정

### (2) 애국주의 대표 사상가 선정

| 사상 분류 | 대표 사상가 | 사상가 선정 이유 |
|---|---|---|
| 헌법 애국주의 | 위르겐 하버마스 | · 민족주의를 대체할 정치철학으로 헌법 애국주의를 제시함.<br>· 법철학적 관점에서 국가-지역-세계를 이해함. |
|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앤서니 D. 스미스 | · 민족 및 민족주의 연구의 방향을 정립시킨 주요 연구자임.<br>· 민족주의에 대한 영속주의와 근대주의를 모두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족류-상징주의를 주장함. |
|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모리치오 비롤리 | · 공화주의를 자유주의 및 공동체주의와 구별되는 정치철학으로 정립시킴.<br>· 헌법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모두를 비판하고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옴. |

9

# 연구 방법

## 2 세계시민주의 분류와 대표 사상가 선정

### (1) 세계시민주의 분류

| 보편적 의무 / 국가 주권 | |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의 우선성 | |
|---|---|---|---|
| | | 인정 | 불인정 |
| 국가 주권의 도덕적 가치 | 인정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약한 세계시민주의 |
| | 불인정 | 강한 세계시민주의 | |

10

# 연구 방법

## 2 세계시민주의 분류와 대표 사상가 선정

### (2) 세계시민주의 대표 사상가 선정

| 사상 분류 | 대표 사상가 | 사상가 선정 이유 |
|---|---|---|
| 강한 세계시민주의 | 피터 싱어 | · Rawls의 만민법(Law of Peoples)처럼 국가 주권을 전제로 한 국제적 논의를 줄곧 비판하고 하나의 세계를 일관되게 주장함.<br>· 국적이 인간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함. |
| 약한 세계시민주의 | 데이비드 밀러 | · 세계시민주의를 강-약으로 구분하고 약한 세계시민주의를 옹호함.<br>· 자민족 구성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옹호함. |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마사 C 누스바움 | · 애국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강한 형태의 세계주의를 비판함.<br>· 세계시민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순화된(purified) 애국주의의 필요성을 주장함. |

## 11 연구 방법

### 3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9가지 조합 설정

| 애국주의 | | 세계시민주의 |
|---|---|---|
| 헌법 애국주의 | ⇄ | 강한 세계시민주의 |
| | | 약한 세계시민주의 |
| |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 | 강한 세계시민주의 |
| | | 약한 세계시민주의 |
| |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 온건한 애국주의 | ⇄ | 강한 세계시민주의 |
| | | 약한 세계시민주의 |
| |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 12 연구 요지

### 1 헌법 애국주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입 장 | 비 판 |
|---|---|
| 1. 보편적 헌법 원칙에 대한 우선적 충성<br>2.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지 않음(역사 및 문화를 토대로 헌법 원칙을 수립하지 않음. 탈인습적 정체성 주장) | 1. 추상적 원칙에 대한 충성심의 비현실성<br>- 비롤리, 누스바움 등<br>2. 前정치적 요소에 근거한 열정을 다른 긍정적 열정으로 승화시킬 필요성을 경시함<br>- 민족주의적 열정은 쉽게 대체하기 어려움(극우 포퓰리즘에 공격당하기 쉬움)<br>- 보편 원칙에 대한 해석과 입장이 다양함<br>- 공화주의를 강한 공동체주의로만 편협하게 이해함 |

13

# 연구 요지

## 2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입 장 | 비 판 |
|---|---|
| 1. 민족에 대한 우선적 충성을 강조(민족으로서의 자연적 사실과 특별한 역할 중시)<br>2.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 강조 | 1. (보수적 민족주의) 이질적인 소수 집단에 대한 배타성<br>2. (극단적 다문화주의) 부적절한 문화에 대한 용인 요구<br>3.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부정. 특정 영토를 근간으로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정체성은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함<br>4. 민족주의를 정치적 종교로 규정함으로써, 보편주의적 비판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타국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조정 원칙 마련이 어려움 |

14

# 연구 요지

## 3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입 장 | 비 판 |
|---|---|
| 1. 민족보다 보편적 의무에 대한 우선적 충성(마을>집, 비지배 자유의 우선성)<br>2.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 강조(애국심의 뿌리) | 1. 비지배 자유를 선험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은 비민주적임(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br>- 곽준혁 : 비롤리는 특수성에 천착한 나머지, '고정불변한 1차적 원칙'을 통한 선험적 규제와 심의과정을 통한 '조정원칙'으로 비지배 자유를 구별하지 못했다.<br>2. 적절한 갈등 해결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의 덕성에 의지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br>- 하버마스 : 공화주의 모델의 오류는 정치적 논의의 윤리적 협소화에 있다. |

15

# 연구 요지

## 4 강한 세계시민주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입 장 | 비 판 |
|---|---|
| 1. 보편 윤리가 국가 윤리보다 우선함(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br>2. 국가 주권의 도덕성 부정(주권의 기능적 역할은 인정) | 1.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보편 윤리에 따른 배려보다 열등한 것으로 규정<br>2. 사회생물학으로 세계시민주의의 우선성을 논증하기 어려움(사회생물학이 윤리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움)<br>3. 초국적 권위체의 설립이라는 선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UN은 지향점임)<br>4. 자칫 건전한 애국심 함양에 소홀하게 되어 극우 포퓰리즘에 공격당하기 쉬움 |

16

# 연구 요지

## 5 약한 세계시민주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입 장 | 비 판 |
|---|---|
| 1. 동료 시민에 대한 의무가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보다 우선함(결과에 대한 책임, 최소주의, 지구적 정의의 2원칙)<br>2. 민족국가는 도덕적 공동체임(운명공동체) | 1. 동료 시민에 대한 특별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가 상충할 때 해결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움<br>2. 지구적 원칙(인도주의 의무)의 적용이 자국의 특수주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br>3. 국제적 의무를 외면하려는 강대국을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되기 쉬움<br>4. 유동적이고 다문화적인 글로벌 도시의 거주민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움 |

17

# 연구 요지

## 6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입장과 그에 대한 비판

| 입 장 | 비 판 |
|---|---|
| 1.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함(보편적 제약을 수용한 순화된 애국심 강조)<br>2. 국가의 도덕적 중요성과 특수적 애착 필요성 인정(애국주의의 양면성) | 1. 보편적이지 않은 윤리가 보편적 윤리로 왜곡될 수 있음(아우렐리우스)<br>2. (초기 누스바움)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의무들은 다른 의무들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천성이 낮음<br>3. (초기 누스바움) 보편 의무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특수 의무의 합법성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 '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음(롤스) |

18

# 연구 요지

## 7 3가지 애국주의와 3가지 세계시민주의 비교

| 사상 \ 항목 | 핵심가치 | 시민교육 목표 | 특징 | 지향하는 국제 사회 |
|---|---|---|---|---|
| 헌법 애국주의 | 보편적 헌법 원리 | 보편적 헌법 원리에 충성 | 개인, 합법성 | 지역 연합과 국제 연합의 공존(EU+UN) |
| 민족주의적 애국주의 | 민족 | 민족성의 계승 발전 | EU 비판 | 민족국가들의 공존 |
|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비지배 자유 | 시민적 덕성 함양 | 특수적 애국심 | 공화국들의 공존 |
| 강한 세계시민주의 | 인류 복지 | 효율적 이타주의 실천 | 개인, 유용성 | 민주적 국민국가들의 연합(EU 같은 UN) |
| 약한 세계시민주의 | 민족국가 공동체 | 민족국가의 발전과 지구적 정의 | 최소주의 | 민주적 민족국가들의 공존 |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인류의 가능성 보장 | 인간성 함양 | 애국적 감정 | 세계시민사회 |

19

# 연구 요지

## 8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9가지 조합의 정합성 정도

| 애국주의 / 세계시민주의 | | 입장 | 헌법 | **공화주의** | 민족주의 |
|---|---|---|---|---|---|
| | | 특징 | 보편성 강함<br>특수성 약함<br>합리적 개인 강조 | **보편성과 특수성 균형<br>시민적 덕성 강조** | 보편성 약함<br>특수성 강함<br>시민적 덕성 강조 |
| 입장 | 특징 | | | 도덕과 시민교육에<br>가장 잘 부합함 | |
| 강 | 보편성 강함<br>특수성 약함<br>합리적 개인 강조 | | 정합성 높음 | 정합성 보통 | 정합성 낮음 |
| **온건** | **보편성과 특수성 균형<br>시민적 덕성 강조** | 도덕과<br>시민교육에 가장<br>잘 부합함 | 정합성 보통 | **정합성 높음** | 정합성 보통 |
| 약 | 보편성 약함<br>특수성 강함<br>시민적 덕성 강조 | | 정합성 낮음 | 정합성 낮음 | 정합성 높음 |

20

# 연구 요지

## 9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보완 논거

**(1) 공화주의적 연대(W. Stuart, 2003)**

① 타산적이고 신중한 연대: 타국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공화국도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국들이 자유롭도록 도울 동기가 있다.

② 인도주의적 연대: Viroli가 "억압받는 자들은 모두 애국자의 동료들이다."라고 말했듯이, 자의적 권력을 악으로 인식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자는 자의적 권력에 굴종하는 타국 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동기를 가진다.

③ 명예로운 연대: 애국자는 조국과 자신의 동료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수호한다는 이유로 타국 시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를 가지길 바란다. 이러한 명예에 대한 열망은, 애국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 애국자가 다른 민족과 결속하여 자유를 위해 투쟁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④ 애국자들의 연대: 각국의 공화주의적 애국자들은 조국의 자유라는 동일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유대를 맺을 수 있다.

21

# 연구 요지

## 9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보완 논거

**(2) 지구적 주권과 국제 정의(P. Pettit, 2014/2019)**

① 자유로운 세계의 만민은 굳건한 공적·국제적 기반을 토대로 국제적 정의라는 이상 안에서 주권적 자유를 향유한다.

② 도움을 주는 국가의 시민은 세계 질서가 그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더라도 혜택을 누린다.(상업과 번영의 기회 증진,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의 잠재적인 기반과 질병의 잠재적 온상을 제거함으로써 위험 감소)

③ '국가는 자신의 시민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닌다'는 말이 '타국 시민에게는 어떤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자유'라는 가치에는 어떤 국가의 개인이 그들의 국가가 궁핍하거나 억압적이어서 잘 살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그들을 도와야 할 특정한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

④ 시민의 승인은 국가가 도덕적으로 조응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자격을 부여한다.

22

# 연구 함의

## 1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1) 애국심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적극적 조화(발전적 상호 관계) 필요성 논증**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민주주의 발전**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자연적 요소(인종, 혈연 등)에 기반하지 않음
- 애국심은 정치적 감정임
- 동료시민, 정치적 삶에 대한 특수한 애착 인정
- 보편적 가치(비지배 자유)의 추구
- 자유 수호를 위한 시민적 덕성(연대와 정치 참여) 강조

애국심 교육에 대한 오해 해소

-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함
- 정치 참여의 부담을 줄이려면 연대감이 필요함
- 애국심은 연대감 증진에 도움을 줌
- 애국적 시민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음
- 이기심을 극복한 개인은 인류애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음

- 자연적 요소에 기반하지 않음
- 애국심은 정치적 감정임
- 동료시민, 정치적 삶에 대한 특수한 애착 인정
- 보편적 규범(가능성 보장)의 수용
- 인류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오해 해소

23

# 연구 함의

## 1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안**

- 도덕적 감정 계발을 위한 정서적 접근의 필요성 논증
  (비롤리, 누스바움 → 역사적 자료, 수사적 내러티브 활용)
-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구분 필요성 논증
-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상호 발전적 관계의 내용 요소 구성
-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필요성 논증

**(3) 공동체적 역량 교육에 주는 함의**

-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 탈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정치철학적 아이디어 제공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 조국에 대한 사랑을 활용한 세계시민성의 실현

24

# 최근 시사점

## 1 코로나19 이후,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화 필요성 증대

**연결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와 세계는 상호 발전을 통해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 애국심과 인류애가 공존해야 하는 이유**

**공화주의적 애국주의**

자신이 속한 지역, 국가가 안전해야 세계가 안전할 수 있다.

⇄

**온건한 세계시민주의**

세계가 안전해야 자신이 속한 지역,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

**자국과 세계의 상호 발전을 위한 노력들**

① 감염 예방을 위한 공동체 전체의 연대
②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별 배려 수용
③ 백신의 생산, 유통에 있어 국가와 세계의 협력
④ 약소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원조

25

# 최근 시사점

## 2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화 필요성 사례 : 세계적 보건 협력

**[협력 사례 : 코백스 프로젝트]**

코백스(Covax) 프로젝트(백신의 전 세계적 공평 보급 계획)에 186개국 참여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부국들이 가난한 국가의 백신 구매를 재정적으로 보조함

**[협력의 위기]**

① 화이자, 모더나 등 주요 백신기업의 코백스 미참여
② 코백스에 가입한 일부 국가들(영국과 캐나다 등)이 제약사들과 직접 구매 협상을 함.
→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직접 구매계약으로 백신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코백스의 공평한 보급 목표를 방해할 수 있음

"국가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들을 먼저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세계적 팬데믹에 대한 대응은 집단적이어야 한다." - 세계보건기구(WHO)
(Alice Cuddy, BBC News, 2020-11-22)

**공화주의적 애국주의와 온건한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은 애국과 인류애의 현실적인 갈등 속에서 상생의 방향을 찾기 위한 정치철학적 모색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감사합니다.

# “도덕교육에서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정합성 연구” 에 대한 토론

신 호 재 (공주대학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서 단위 정치 공동체가 지니는 특수성과 세계적 수준에서 담보될 수 있는 보편성 간 갈등 혹은 긴장 상태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는 현실을 염두에 둘 때, 본 논문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가 혹은 세계인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 정치 공동체에서는 모호한 수사학적 용어들이 (더 나아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용어들이) 남발하며 세계 수준에서도 그저 선언적인 외침이 가득한 상황에서 본 논문의 제목이 반가운 것은, 비단 토론자뿐만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러한 접근을 발표자가 유일무이하게 전개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건설적으로 논의한 바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의 논문은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의 도덕과교육에 의미 있는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는 (성인(聖人)을 추대할 때 이외에도) 때로 ‘악마의 변호사(devil’s advocate)’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다 나은 선(good)을 위하여, 그리고 보다 나은 도덕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토론자는 이와 같은 역할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발표자가 시도한 이론적 측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혹은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가 논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연대’의 의미는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를 묻고 싶다.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토론자는 이 ‘연대’의 내포와 외연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논문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본다. 좀 솔직히 말한다면, 토론자는 현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연대’의 의미만큼 혼란스러운 용어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는 ‘연대’의 의미 중에서 왈쩌가 언급하는 정치적 교정(political correction)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영역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 ‘연대’의 의미는 다양성을 넘어 변질된 부분이 엄존하며, 우리는 이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연대’라는 어휘가 등장한 횟수에 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추측하건대, 발표자는 ‘연대’의 의미를 특정 선관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기초로 접근하기보다는 (공화주의에 대한 발표자의 애정을 반영하듯)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공동체적 특성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듯 보인다. 여기서 언급한 ‘어느 정도 수준’은 공동체주의가 지지하는 맥락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원자화된 인간들이 계약론적 접근에 따라 형성하는 결사

(association),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발표자가 논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시민적 연대는 '이 정치 공동체'에서 적어도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도덕과교육에서는 그 의미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발표자가 논증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정합성 있게 다가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즉 단위 정치 공동체에서의 연대와 세계시민주의 맥락에서의 연대가 구분된다면, 발표자는 이 '연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듯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 토론자는 발표자에게 '지금 그리고 여기' 정치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민족'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애국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생성하고자 한다면 '민족'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만족스럽게 확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도덕과교육에서의 애국주의가 언급되면서도 이 '민족'의 의미가 본 논문에서 제대로 탐색 되지 않은 점은 다소 의아하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혹은 최종 도착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그리고 여기'가 어떠한지 혹은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곽준혁 교수가 언급하였듯이, 한국 사회에서 애국심은 민족주의의 다른 표현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호하든 혹은 선호하지 않든, 우리 역사 전개에 있어서 '민족'의 의미는 생각보다 창백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발표자가 본 논문의 결론 부분에 이르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독립된 자치 공화국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기억으로 대표되는 '진정한 조국(una vera patria)'의 상(像)은 그 결이 한국 사회에서의 민족주의와 생각보다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토론자는 공화주의적 국가에 대한 사랑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 하나의 길만 존재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심지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효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밀러 교수가 언급한 바 있듯이 (물론 그는 이것을 분배적 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언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적용 가능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 상호관계의 방식(modes of human relationship)에 대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가 보기에 발표자가 논증하고 있는 다양한 애국주의의 관점은 '지금 그리고 여기' 정치 공동체의 특수성과 맥락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때로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교육에 있어서 '민족'에 대한 강조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명시적이면서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민족의 의미와 연관 지어 교육받은 '우리'에게, 애국주의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토론자는 르낭이 명시했던 민족의 개념, 즉 "이미 치러진 희생과 여전히 치를 준비가 되

어 있는 희생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거대한 결속" 이라는 의미를 지지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영혼이며 정신적 원리로서의 '민족' 개념이 과연 '지금 그리고 여기' 에서 얼마나 유의미한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출발점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자는 어떠한 민족의 상을 가지고 '우리 사회' 의 애국주의를 언급하고 있는가? 만일 그것이 '우리 사회' 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 도덕과교육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사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이론적 측면의 질문 혹은 의문들은 더 있다. 예를 들어, 논문 73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화주의적 가치들을 민주적 가치와 동일시한 부분은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공화주의적 가치의 태동과 그 전개, 특히 중세 북부 이탈리아에서의 역사나 르네상스 전후의 공화주의 관련 저작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공동체 수준의 자치가 지니는 의미와 민주적 가치는 그 방향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홉스나 벌린이 주장한 자유가 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는 요청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닌 혹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복수의 이론적 의미를 그 역사적 맥락에서 탈각시켜 단일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 그리고 지면 관계상) 지금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사실 이 언급이라는 것은 일종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발표자가 지닌 그 훌륭한 역량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아쉬움을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여기서 '실질적' 이라 함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의 각론, 즉 단위 교과 교육과정과 연관된 것을 일컫는다. 물론 이는 도덕과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첫째, 그동안 공화주의적 애국심 혹은 애국주의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행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아쉬움을 생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결론은 이미 수년 전에 학술지 등에서 언급된 것이다. 특히 내러티브의 활용이 그러하다.

이미 7년 전, 공화주의적 애국심의 도덕과교육적 활용과 관련하여 내러티브 접근이 소개되었다. 다양한 역사적 사료와 이야기 그리고 역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담론에 대한 활용이 도덕과교육에서의 공화주의적 애국심 고취 방안으로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발표자의 내러티브 활용과 관련한 결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기존 결론을 넘어서는 논의가 등장하지 않으며 기존 결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여전히 담지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발견할 수 있다. 발표자가 이를 인지하였는지 혹은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기존 결과를 탐색하였다면 적어도 기존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상의 함의 혹은 구체적 교육 방

안을 도출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서적 접근을 활용한 도덕적 감정 계발과 관련하여 이것이 '지금 그리고 여기' 정치 공동체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사용될 수 있는지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곽준혁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하였듯이, 현재 적지 않은 시민들은 정치인과 전투적 정치활동가가 만들어내는 감동적 주제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반응하는 수동적이고 이질적 군중이 되어가는 후기 민주주의적(post-democratic)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정서적 접근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 혹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주장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우려가 농후하다. 우리는 애국(혹은 민족)과 관련하여 여전히 분열적이며 파괴적인 감정적 선동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러한 선동을 일으키는 부류들은 역사와 공동체 그리고 정의와 도덕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 중요한 것은, 특히 도덕과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접근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정서적 접근의 방안에 대한 탐색이다.

셋째, 역사적 자료를 활용한 시민교육에 있어서 발표자가 언급한 두 가지 고려할 점 즉 고결한 이상의 문제나 역사적 과오 혹은 소수자 배척의 문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사실 공화주의적 맥락에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 역시 이미 5년 전 소개된 바 있다. 역사적 자료의 경우 구전(口傳) 형태와 기록된 문서의 형태를 통해 인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그 신뢰성 수준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상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필사본 버전의 문제나 역사가의 편견 및 편향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제 아무리 (사실 이는 토론자도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도덕철학 혹은 도덕심리학적 접근에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인데) 스키너가 지지하는 맥락주의적(contextualist) 방식을 원용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자료는 '사실 조각'을 인식하는 퍼즐 놀이보다는, 본질적으로 신념의 행위에서 비롯된 하나의 결과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곽차섭 교수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에 대한 물음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를 상기한다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실제로 발표자가 논문 151쪽에서 나열한 몇 가지 투쟁의 역사는 '늘' 그리고 '언제나' 혹은 '필연적으로' 공화주의적 가치로 해석되거나 귀결되지는 않는다. 역사적 자료에 대한 접근은 섣부른 인과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치열한 소통을 통해 가치 있는 의미 생성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애국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솔직히 토론자는 특정 애국주의적 관점과 특정 역사적 자료가 특정 맥락에서 탈각되어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넷째,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인데, 도덕과교육에서의 애국주의 접근과 세계시민주의 접근은 단일한 형태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발표자가 논문 46쪽에서 관련된 도덕과 집필기준 내용을 원용하고 있듯이, 현재 집필기준에서는 다양한 애국주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집필기준 연구 책임자로서) 집필기준에서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것은, 각각의 입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그리고 여기' 정치 공동체에서 모두 가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자가 논문 전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듯이, 이들은 모두 세계시민주의와 관련하여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미가 '정합성'의 이름으로 재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불편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 논문에서 설정된 정합성의 기준으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의미를 정합성이 높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조합의 그것에 비하여 평가절하해야 하는가? 도덕과 교육과정 및 도덕과 집필기준에서 의도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합리적인 추론과 판단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이론을 특정 기준으로 판단하여 강조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정합성 연구 결과 자체가 도덕과교육에서의 함의점으로 직결되는 매커니즘에 대해 토론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특정 관점이 특정 기준에 의하여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그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토론자는 역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모든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토론자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역량'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애국주의를 담지해야 할 민주시민 역량은 무엇이고, 그 역량은 세계시민 역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를 지닐 수 있는가? 발표자는 여기서 '공동체적 역량' 교육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공동체적 역량이 무엇이고 그 하위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동체적 역량과 관련하여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과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역량의 정의는 우리에게 그리 구체적인 길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물론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식이나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역량을 구성하는 지식, 기능 그리고 가치 및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는 요청된다. 마찬가지로 발표자가 언급한 '공동체적 역량'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역량과 세계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이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고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가? 향후 도덕과 교육과정을 위해서도 이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관점에 있어 어떠한 지점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었다.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 측면에서 발표자가 의도한 결과가 구

체성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완성형의 논문에서 위와 같은 질문 혹은 의문 그리고 아쉬움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않다는 점을 토론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가 논문 내용을 잘못 이해한 바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그래서 발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한다는 점, 그러나 혹시라도 발표자가 논문 작성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발표자도 토론자와 함께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써 보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본 논문을 통해 토론자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주제 하에 놓여있지만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논의를 진중하게 탐색하고 논리적으로 정렬하고자 한 발표자의 역량은 토론자에게 상당한 귀감이 되었다. 이에 발표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20 신진학자 학술 연구 성과 발표

# 미국 고등학생의 마틴 루터킹의 날 기념 서사에 나타난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들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송애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연쇄 이주형

- 낯 설다는유품 빠져 이용보수 이탈률 음악이 이부년
  - 바 :뜹보뿅 음보쀼꾱 이타꾱 ,뜨주 음보꾱곱 뿌에용보수 응(yromem avitcollec)뿌이 다꾱
  - (3691r ,alle3)뱝 코니눠보뿅 음뿌이 다꾱 이보쀼꾱 이타꾱 도빠
    뱝 코니눠꾱심 를뜨서 승눠두추 이타꾱 응보서 나이울이 퍽서뿌 이쇼 뿌이 다꾱
  - 뱝 코니눠 음뱝뿌 승주아쇼 음보부자 샤자응 뿌에용보수 다꾱 승도빠



## 연쇄 이주형

- 낯 설다옹쌤 라부도서뿌
  - ,obeloT & ozbnegsM)음쓔 아르용뱔 이변빙 도빠소 이윤뜨 퍼고 응보서 나이울이 퍽서뿌
    (3761r ,gnimmiaG & asuorbooW ;7005 ,alnuS ;2005 ,ib ib ,.,ccuN ;2005
    당중 ,성빠 이버띱 퍽퍼고 ,성빠 이타꾱 퍽퍼고 ,퍽서 이빠빝 퍽퍼고 ,자보뉴 퍽퍼고 승이
    뭡서뿌 도으읗 성빠 이

- 낯 설다유쌤 빠뱔 이용보수 이탈률 음악이 이부년
  - 바 :뜹보뿅 음보쀼꾱 이타꾱 ,뜨주 음보꾱곱 뿌에용보수 응(yromem avitcollec)뿌이 다꾱
  - (3691r ,alle3)뱝 코니눠보뿅 음뿌이 다꾱 이보쀼꾱 이타꾱 도빠
    뱝 코니눠꾱심 를뜨서 승눠두추 이타꾱 응보서 나이울이 퍽서뿌 이쇼 뿌이 다꾱
  - 뱝 코니눠 음뱝뿌 승주아쇼 음보부자 샤자응 뿌에용보수 다꾱 승도빠



## 연쇄 이주형

- 뱔뿌 뇬성야 이탕타부 탸마 서에퍽뇬윤교 및 서뿌 둔미

- 서뿌 둔미
  - 성부급 도울이 승눠퍽성 음(응뿅 샤유자)성퍽 이둔미
  - 성빠 밥니 이용쉬 퍽서둔 퍽보쉬자 서도쉬자고자 쯔이 음종응 퍽이서
    (6891r ,nsbgesR bilenoR)퍽뼈 도울밥니 서둔 음일뱅성 탕타부 탸마 :
    (8,r r105)뱝뜹 뽀밥니 탕타부 탸마 에물 뱝벼내 QD 탕성뿌 :





- 퍽뇬윤교 둔미
  자성뿌 퍽퍼고 ①
  쉬호수 이응뿅 샤유쉬 ②
  퍽성 이퍽쌥 이주주이 ,보퍽 이서뿌 둔미 ③
  (서뼈 성이서 응도빠서 이이흔 ,이큽)퍽성 보승서 이종응 뿌폴비 ④

## 연구의 배경

### ▪ 마틴 루터킹 교육과정 비판

1. 생의 특정 기간(1954-1965)에만 초점
   - 그 결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킹의 삶이 보여주는 다면적 측면을 접할 기회를 학생들에게서 박탈(Kim, 1993)
   - 킹의 베트남 전쟁 반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을 누락함으로써 미국 사회를 향한 그의 비전을 축소하여 제시(Barton & Levstik, 2004; Kim, 1993)
2. 영웅화하며(heroic) 축하로 일관하는(celebratory) 내러티브
   - 킹의 인종차별 폐지, 흑인의 투표권 부여 업적을 찬양하는 내러티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은폐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학생들이 현대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기회 박탈(Alridge, 2006)
3. 인권 운동 지도자와 같은 세속적(secular) 인물로만 묘사
   - 킹의 신앙과 목사로서의 소명에 대한 언급 부재는 그의 비폭력 불복종 철학과 평화적인 인권 운동의 정신적 동력을 학생들로 하여금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듦(Nuemann, 2018)

5

## 선행 연구 검토

### ▪ 선행 연구

- 교육과정 비판의 핵심은 마틴 루터킹과 시민권 운동에 대한 기술은 균형성과 포괄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학교급, 학년과 무관하게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임

| 양적 연구 | 혼합 연구 | 질적 연구 | |
|---|---|---|---|
|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마틴 루터킹은 인종을 막론하고 고등학생이 뽑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에 선정됨. 그러나, 선정된 이유는 제시되지 않음(Wineburg & Monte-Sano, 2008) | 흑인과 백인 학생 모두 마틴 루터킹이 이룬 업적의 역사적 중요성과 비폭력 정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에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냈으나, 흑인 학생만이 마틴 루터킹을 자신의 롤모델이라 표현함(Baston & Levstik, 1998; Epstein, 1998, 2000, 2001, 2010) | 초등학교에서 마틴루터킹에 관한 수업은 그의 귀감이 되는 인격적 특성과 비폭력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교사는 영화에서 본 장면(평화롭게 행진하는 흑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에 대한 학생의 질문을 회피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교사는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염려, 수업 진도를 끝마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학생에게 세상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고 싶은 바람 등을 언급하였음(Wills, 2005) | 고등학교 수업에서 교사는 시민권 운동 도중 자행된 인종차별적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개; 교사가 수업을 계획한 의도대로 일부 학생은 희생자를 향한 공감적 반응을 보임.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희화화, 무관심, 거부(특히, 흑인 학생)하는 반응을 보임 (Binnenkade, 2016) |

6

##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마틴 루터킹의 생애와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학생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 ▪ 연구 질문

1. 미국 고등학생은 마틴 루터킹의 날에 무엇을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가?
2. 미국고등학생은 마틴 루터킹의 생애와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학생의 민족적/인종적 정체성은 위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7

# 연구 방법론

8

## 연구 방법

▪ 탐색적 질적 연구(Exploratoty Qualitativ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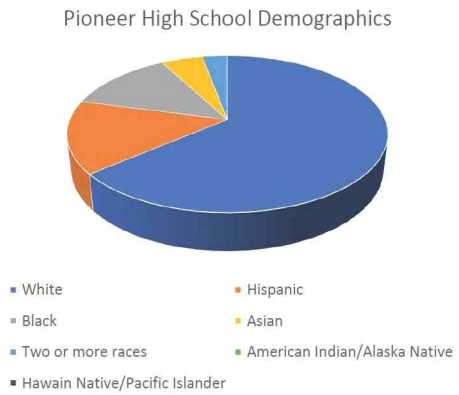
▪ 사진 유도 인터뷰(Photo Elicitation Interview : PEI)

- 사진을 매개로 연구 대상의 응답을 이끌어 내어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 연구자 효과(Interview effect)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연구 대상과 인터뷰의 주도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Harper, 2002)
-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 대상의 자유롭고 풍부한 생각을 알고자 할 때 적합(Barton, 2015)
-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사진이 마틴 루터킹의 생애와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는 역사적 사료이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단시간에 연구 대상에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매체라는 점이 고려되었음(Collier & Collier, 1986; Langmann & Pick, 2018)

9

## 연구 대상

• 미국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7명의 학생




10

## 연구 대상

-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Number and Portion of Participants*

| Characteristic | Participants | |
|---|---|---|
| | Number | Portion |
| Gender | | |
| Female | 19 | 0.70 |
| Male | 7 | 0.26 |
| Other | 1 | 0.04 |
| Race or Ethnicity | | |
| White | 10 | 0.37 |
| Black | 7 | 0.26 |
| Black & White | 2 | 0.07 |
| Hispanics | 6 | 0.22 |
| Asian | 2 | 0.07 |
| Socio-economic Class | | |
| Working Class | 4 | 0.15 |
| Situational Poverty | 4 | 0.15 |
| Risen from Poverty Middle Class | 2 | 0.07 |
| Illusory Middle Class | 1 | 0.04 |
| Lower Aspiring Middle Class | 1 | 0.04 |
| Solidly Middle Class | 10 | 0.37 |
| Upper Middle Class | 3 | 0.11 |
| I prefer not to answer | 2 | 0.07 |
| Grade Level | | |
| Junior | 22 | 0.81 |
| Senior | 5 | 0.19 |
| Total | 27 | |

11

## 자료 수집

### ▪ 인터뷰 진행 방법 및 절차

- 총 18장의 사진을 인터뷰의 매개물로 사용함
- 같은 인종/민족적 배경을 지닌 학생끼리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그룹당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한 후,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음(총, 48,559words)

12

## 자료 수집

### ▪ 인터뷰 지시문 중 일부

"여러분이 마틴 루터킹의 날 기념 전시회를 기획하는 팀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임무는 다가오는 마틴 루터킹의 날에 학교 로비에 사진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전시할 사진 6장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룹 활동이므로, 여러분은 그룹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혹시 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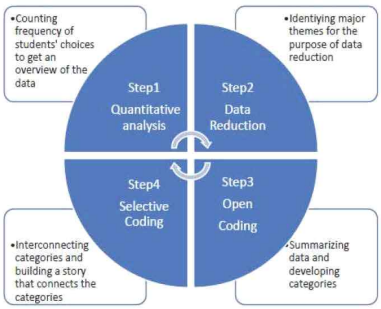
### ▪ 인터뷰 질문 중 일부

"여러분이 고른 사진들에 대해 설명해 주겠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고른 이유를 이야기해 줄래요?"
"(사진을 가리키며) 혹시 이 사진을 뽑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전시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진들을 보며 무엇을 배우기 원하나요?"
"이 사진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나요?"

13

## 자료 분석

- 질적 자료의 의미 분석 과정




*Top Six Images Chosen for the MLK Day Exhibition across Groups*

| Rank | Image | Frequency (N = 8 groups) | Themes |
|---|---|---|---|
| 1 | | Total 7<br>- Black 2<br>- Hispanic 1<br>- White 3<br>- Asian 1 | Black, White and Latino/a together/ MLK as an advocate for everybody |
| 2 | | Total 5<br>- Hispanic 1<br>- Black 1<br>- White 3 | Struggle at a personal level/ not all Whites were against Blacks (focusing on the White person who aided MLK). |
| 2 | | Total 5<br>- Hispanic 2<br>- White 1<br>- Black 1<br>- Asian 1 | Accomplishment, MLK's influence |
| 3 | | Total 4<br>- Hispanic 2<br>- White2 | Religion (MLK's religious faith, the tie between religion and the movement), character (humility) |
| 3 | | Total 4<br>- Black2<br>- White1<br>- Asian1 | Struggle and hardship that African Americans experienced as a group, process for democratic social change |
| 3 | | Total 4<br>- Hispanic 1<br>- Black 1<br>- White 1<br>- Asian 1 | White supporter, sacrifice, tragedy |

14

## 자료 분석(코딩 과정)

*Examples of Codes Developed in the First Cycle Coding*

| The First Cycle: In Vivo Coding | |
|---|---|
| The Initial Codes | The Second Codes |
| • He was fighting for all<br>• It was for everybody<br>• Shows that the Civil Rights movement wasn't just a Black thing | • (+) for all |
| • I feel like the hardships are important too<br>• Show that he faced violence every single time<br>• Represent the hurt that was felt by the hatred | • (+) struggle |
| • There's another side to White people<br>• Because even though he was White<br>• Not every single White person back then was evil | • (+) White supporter |
| • The only thing she knows is that he gave a speech<br>• They would rather like the happy stuff<br>• We mainly talk about White people culture | • Critique |

학생의 말을 그대로 코드로 사용(In vivo code) 하여 총 631개의 최초의 코드 생성

비슷한 의미를 지닌 그룹별로 총 50개의 코드 생성
예) "그가 매순간 폭력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준다" 와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느꼈을 상처를 보여준다"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역경(+)struggle'이라는 코드를 부여함.

해당 이미지를 선정한 이유를 설명할 때 (+),
해당 이미지를 배제한 이유를 설명할 때 (-)

이 외에도 비판(Critique), 다양성(Diversity), 교훈(Lesson), 연합(Unity) 등의 코드 들이 있음.

15

## 자료 분석(코딩 과정)

*Pattern Codes Developed in the Second Cycle Coding*

| Cluster | Pattern Codes | The Second Codes |
|---|---|---|
| 1 | Accomplishments of MLK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 (+) accomplishment, (+) his impact, (+) his importance, (+) international recognition, (+) national recognition, (+) milestone |
| 2 | Tough process for achieving civil rights | (+) process, (+) struggle, (+) sacrifice |
| 3 | MLK's advocacy for a wide range of people | (+) for all, (+) his vision, (+) international influence |
| 4 | Diversity of supporters | (+) diversity, (+) supporter, (+) White supporter, (+) unity |
| 5 | MLK's admirable character | (+) character, (+) his action |
| 6 | MLK's religion and the role of religion in the movement | (+) religion |
| 7 | Power of ordinary people | (+) ordinary, (+) her strength |

▪ 이 코딩 과정을 통해 발견된 7개의 주제

1. 마틴 루터킹과 시민권 운동의 성취
2. 시민권을 얻기 위한 힘겨운 과정
3. 다양한 범주의 사람을 옹호했던 마틴 루터킹
4. 지지자들의 다양성
5. 마틴 루터킹의 존경할만한 인격적 특성
6. 마틴 루터킹의 신앙과 시민권 운동에서 종교의 역할
7. 평범한 시민의 힘

16

# 연구 결과

17

## MAKING THE STORY MORE INCLUSIVE

7 [Photograph of marchers joining hands in front of the Lincoln Memorial during the March on Washington on August 28,1963] Nearly 250,000 people took part in the march to advocate for the civil and economic rights of African Americans, including 60,000 white participants. Among the participants, there were also thousands of Latinos — many of them Puerto Ricans from NYC.

- **클레어(백인 여학생)**

"이 사진에 대해 생각하면서, 특히 여기 라티노들도 있었다는 대목을 보며, 나는 그들이 자신들도 그 사건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있었어. 왜냐면 나는 정말 몰랐어. 어쩌면 내가 원어민들만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서 더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정말 그들이 자신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는 여태껏 시민권 운동은 그저 백인과 흑인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거든."

18

## MAKING THE STORY MORE INCLUSIVE

12 [Photograph of Rev. James Reeb] James Reeb (38), Boston Unitarian minister, was beaten to death by five white men after he joined protests for African Americans' voting rights in Selma, Alabama on March 7, 1965. He was one of the ministers who answered a call from MLK, for religious lead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to join him in Selma after the violent confrontation.

- **마뉴엘(히스패닉 남학생)**

"우리 머리 속에는 당시 모든 백인들이 흑인을 적대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진들 중 몇 개, 이 목사님 사진 같은 그런 사진은 백인 중에도 또 다른 부류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은 그들 중에서도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많이 두려웠었겠구나 란 거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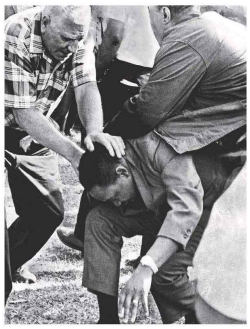
## MAKING THE STORY MORE INCLUSIVE

- **흑인 학생 그룹**

**레이븐**: 나는 이 사진을 추가하고 싶어
**자스민**: 응, 나도 그래. 왜냐하면 그는 백인임에도-
**레이븐**: 응, 맞아. 그는 백인이었지.
**자스민**: 그들이 그를 때렸어.
**레이븐**: 왜냐하면 그가 흑인들을 받아들였기(accepted)때문이지
**자스민**: 맞아. 그리고 그가 죽었지
**니아**: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보통 백인이 시위를 하면 그들이 구타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들 역시 그렇게 맞았어. 왜냐면 그들은 소위 옛날 말로 한다면 '니그로 러버(Negro lovers)' 로 보여졌기 때문이야. 그런 이유로 그들은 그런 백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이 사진은 백인들도 기꺼이 우리 인종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레이븐**: 일부(Some)
**니아**: 응, 일부(Yeah, some)
**자스민**: 일부(윙크를 하며)
**니아**: 그래, 일부(두 손바닥을 자스민에게 향하여 보여주면서)

20

## EMBRACING THE DARK SIDE



21

## CHANGE DOESN ′ T HAPPEN OVERNIGHT BY A SINGLE HERO

11 [Photograph of John Lewis (foreground) and marchers beaten by state troopers in Selma, Alabama] In an event that would come to be known as "Bloody Sunday," voting rights marchers were severely beaten as they attempted to march to Montgomery for voting rights, on March 7, 1965. John Lewis was one of the civil rights activists who organized this march.

- **흑인 학생 그룹**

**티아라** : …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시민권을 주자 결심했고, 그 다음 해에 붐! 여기 있다 시민권! … 이처럼 하룻밤 사이에 즉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조던** : 나는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운동 전체는 단지 연설만이 아니란 걸. 그 연설 장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실제로 수 많은 시험과 고난에 직면해야 했음을.

**니아** : 요즘들어 그런 말 하잖아. 젊은 사람들, 특히, 흑인들이 투표를 안한다는…. 이 사진은 우리 모두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선조들이 감내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어.

22

## CHANGE DOESN ´ T HAPPEN OVERNIGHT BY A SINGLE HERO

2 [Photograph of African American woman with a box loaded, walking instead of riding the segregated buses during the Montgomery Bus Boycott] More than 40,000 African Americans joined the boycott against the policy of racial segregation. This boycott campaign lasted for 381 days throughout 1955-56.

- **엘리야(흑인 여학생)**

"나의 경우에는,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 했었는지 말해주지 않잖아. 그런데 이 사진을 봐. 그것은 무려 381일이었어.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저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었음을."

23

# 연구 결과 논의

24

## 연구 결과 요약

학생들은 공식화된 내러티브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음 : 마틴 루터킹이 이룬 업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

그러나 학생들은 기존의 단편적이고 관습화된 이야기들이 야기하는 문제들을 지적하며, 기존의 마틴 루터킹 기념 서사에 다양성과 복잡성을 가미하고자 하였음

- 학생들은 마틴 루터킹을 지지하고 시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은 흑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백인 지지자들과 히스패닉 참가자들도 있었음을 강조함
- 또한, 일부 백인, 히스패닉 학생과 아시안, 그리고 흑인 학생은 마틴 루터킹과 시민권 운동 참가자들이 겪은 역경, 즉, 인종차별적 폭력을 함께 기억하기 원하였음

25

## 연구 결과 논의

비록 학생들의 선택이나 그들이 제시한 선택의 근거는 그룹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역사적 교훈을 구성해갈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줌. 또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마틴 루터킹과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통해 기존의 학자들이나 연구자가 미처 예상치 못한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며, 그것을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었음

**도덕적인 목소리들**

학생들은 자신의 인종/민족이 아닐지라도 시민권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짐; 인종차별적 폭력의 희생자가 겪었을 아픔에 공감적인 반응을 보임

**시민적인 목소리들**

한편, 흑인 학생들은 시민권 운동 과정에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희생자의 아픔 보다 그들의 희생이 지닌 가치에 주목함.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는 고통이 수반되며 이를 위해 평범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 투표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행사해야 한다는 자성적 목소리를 냄

26

# 연구의 한계 및 고려사항

27

## 연구의 한계 및 고려사항

- 본 연구는 한 학교에 재학 중인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연구 참가 학생의 응답은 미국 고등학생 일반의 생각을 대표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은 순전히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본 연구의 주제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음
-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만큼은 깊이 공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문화권의 외부인(cultural outsider)이기에 미국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 영어는 제 2외국어이기에 학생의 응답 속의 미묘한 뉘앙스나 중의적 의미 등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음
- 본 연구의 참가자는 고등학교 11-12학년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사진들은 그 보다 더 어린 연령층에게는 교육적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진 유도 인터뷰 기법은 연구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업 방법으로서도 잠재력이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처럼 인종 갈등과 같은 논쟁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사진을 수업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 본 연구에서와 같은 수준의 활발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수 있음. 본 연구에서 백인 이외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들이 고른 사진을 학교 로비에 전시했을 때 교사나 다른 학생의 비난 또는 저지 등에 직면 할 것이라고 보았음.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사진 유도 인터뷰 기법을 연구나 수업에 적용 시에 학교나 교실의 풍토 및 소집단 의 인종/민족/성별 등의 구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8

# “미국 고등학생의 마틴 루터킹의 날 기념 서사에 나타난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들” 에 대한 토론

권 누 리 (서울 서래초등학교)

본 연구는 학생들이 마틴 루터킹의 생애와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무엇을 학습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수업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이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토대로 마틴 루터킹과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반응 및 인식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도덕과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진 유도 인터뷰 기법(PEI)’은 연구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업 방법으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어 교육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주제 발표의 토론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먼저 발표문을 읽은 토론자로서 본 연구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부족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연구자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킹은 미국의 정신(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도덕적 귀감자로서 미국 역사 및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 또는 도덕적 귀감을 활용한 교육방법은 학생들에게 모델링의 효과를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 도덕교육 방법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물의 특정 기간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거나 영웅화하는 등 단편적이고 관습화된 측면만을 제시한다면,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기존의 마틴 루터킹 교육과정에서 인물에 대한 기술이 균형성과 포괄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과의 인물학습 및 모델링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역사적 장면을 포착한 사진들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마틴 루터킹과 시민권 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학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질적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설문 조사나 심층 면담을 활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진 유도 인터뷰(PEI) 방법이라는

참신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덕과에서 이루어진 민주 시민성 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로 '민주 시민성의 요소 선정, 민주 시민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 민주 시민성 교육 방법' 등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PEI 기법을 토대로 연구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생한 반응 및 자유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 작업은 도덕과 민주 시민 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론자는 본 연구에서 기존의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역사적 인물 및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자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 수집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진 유도 인터뷰(PEI)를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생생한 반응과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응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사진 유도 인터뷰(PEI)는 사진의 내용(콘텐츠)과 사진 제시 방식(프로세스)을 활용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진 선정 및 사진 제시 방법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진들(18장)의 선정 기준 및 제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연구 대상 및 인터뷰 진행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27명의 학생들을 같은 인종/민족적 배경을 지닌 학생끼리 그룹을 만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때, 다양한 인종/민족이 혼합된 그룹(mixed group)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인종/민족적 배경을 지닌 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동일 인종/민족 집단으로 인터뷰 그룹을 구성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사진 유도 인터뷰(PEI) 기법의 수업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진 유도 인터뷰(PEI)기법은 연구 방법으로서뿐만 아니라 수업 방법으로서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지만, 제시되는 사진의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수업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고려한 교육을 중시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호교류과정을 통한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학생들을 교화의 대상이나 지식의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의 구성자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수업에 적용할 때, 본 연구 결과가 한국의 도덕교육 및 교육현장에 어떠한 교육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의 부족함으로 연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질문이나 제안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신한 연구 방법과 그로 인한 발견은 상당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논문을 통해 토론자로 하여금 연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애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